

2019학년도 제 2 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9년 1월 11일(금) 10:30~12:00
- 회의장소 : 본관 2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이종진 (위원장)
김달원 (학교법인 사무팀장)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이관엽 (등심위 TFT 위원)
최효영 (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창배 (외부전문가위원)
- 불참위원 : 김정미 (주간MBA 원우회장)
- 배 석 :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이근화 (간사 / 기획예산팀 직원)

1.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성 확인 및 심의 보고자료 내용 해설

- 배석한 기획예산팀 간사가 교육부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의 3개년 추이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서 배석한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이 2018회계연도 가결산 내역을 설명함.

2. 등록금 심의 관련 위원 발언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본교의 부채 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 상대평가에서는 30%~70% 사이에 위치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근화(기획예산팀 간사)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는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충분히 재정적으로는 안정적인 대학이 있을 수 있음. 이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주요 사립대에 비해서는 확연히 낮은 수준임.

이종진(위원장)

주요 사립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부채가 적다는 것은 학교 재정의 입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이월금 비율이 낮을수록 이월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 자료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

집행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월금의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김장훈(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지출 예산에서 남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자금을 의미함. 이월금이 적을수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다는 의미임.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법인전입금 비율 항목에서 주요 사립대 평균이 높은 이유가 성균관대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른 주요 사립대들의 현황은 어떠한지.

이근화(기획예산팀 간사)

성균관대를 제외한 주요 사립대들은 1~2% 대의 법인전입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원재환(학생문화처장)

학교 운영경비 부담률이 100%를 초과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벌어들인 수입 외에 다른 부분은 어떤 소득이 재원인지.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하여 법인이 보유한 유동 현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이에 속함. 법인의 능력에 비해 더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내용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법인 관련 지표보다 학교 지표가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데 학교 지표 관련 내용이 별로 없는 것 아닌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9가지 지표 중 6가지 지표가 학교 관련 지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되고 있음. 학교 관련 주요 지표는 가결산에서 또 확인할 수 있음.

이관엽(등심위 TFT 위원)

교외 장학금이 줄어들면서 장학금 지급율이 낮아져서 등록금 의존율이 올라간 것인지.

이근화(기획예산팀 간사)

등록금 의존율이 상승한 주요 원인은 기부금이며, 장학금 의존율이 줄어든 것은 교외 장학금이 감소하여 장학금 지급률이 낮아진 것이므로 지표를 혼동하여 보지 않기 바람.

이관엽(등심위 TFT 위원)

등록금 의존율 항목에서 주요 사립대학 평균도 올해 같이 상승했는데, 타 사립대들도 우리 학교와 같은 이유로 지표가 악화된 것인지.

이근화(기획예산팀 간사)

비등록금회계의 경우 모든 대학에서 국고 보조금이나 연구 수주금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학부 등록금을 주요 대학들이 모두 동결시킨 가운데, 등록금 감소분은 주로 입학금 감축에 의한 것이지만, 이 감소분보다 비등록금 회계의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들이 등록금 의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타 대학의 경우 한국어학당 수입이 30~40억 원이 줄어든 경우도 있다고 함. 등록금 외 기존 수입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등록금 의존율이 올라가게 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등록금 동결이 학교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학교 외부 수입을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점점 필요한 시점임.

이관엽(등심위 TFT 위원)

교육서비스의 질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학생들도 체감하고 있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학교가 등록금 상승분을 다른 곳에 유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위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때에 학생들을 위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됨. 학교와 학생이 같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등록금 의존율과 교육비 환원율이 분모와 분자를 반대로 하면 서로 비슷한 지표 같은데 주요 지표를 보여준다고 하면 또다른 지표를 보여줄 수 있으면 더 논의가 의미있을 것 같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등록금 의존율이 올라가는데 교육비 환원율이 내려간다는 것은 등록금은 그대로인데 물가 및 기타 부대비용이 상승한다고 유추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등록금 의존이 심화되므로 등록금을 올려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두 지표는 어떤 의미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지표임. 등록금 환원율은 등록금 이외의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에 노력하라는 것이 지표의 의도이고, 교육비 환원율은 학생들에게 등록금보다 더 많이 투자하라는 의도의 지표임.

이종진(위원장)

학부의 발전기금을 사용할 때에도 교수들을 위해 많이 사용하는 학부가 있는가 하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학부도 있음. 이러한 내용들이 총교육비에 집계되는 내용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지금 제시된 9가지 지표 이외에 재정회계 상황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추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임.

이근화(기획예산팀 간사)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는 교육부에서 대학 알리미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정해 준 지표이기 때문에, 다른 지표를 요청하시면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음.

이종진(위원장)

가결산 내역을 보면 입학금 폐지, 대학원 충원율 감소, 최저임금 인상, 강사법 시행 등으로 수입은 줄고 있는데 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균형 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 올해에는 흑자를 유지하였지만 내년에는 적자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등록금 심의 안전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이종진(위원장)

학부 등록금은 동결하기로 하며 대학원 충원율을 고려하여 모든 대학원의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함. 다만 국제학생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함. 국제학생의 등록금 인상분은 전액 국제학생교육센터의 운영을 위해 쓰여질 것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정부 가이드라인은 2.25% 인상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 등록금이 얼마나 오르는 것인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해도 입학금 감소분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등록금 총액은 큰 차이가 없음. 국제학생교육센터에서는 국제학생의 한국어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외국인 등록금 인상분으로 충당할 예정임.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입학금 감축은 교육부 의무사항인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학부 학생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는 외국인 학생에게도 적용하였음. 외국인 학생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타 대학은 이미 선제적으로 등록금을 계속 올려왔기 때문에 등록금을 10% 인상하면 타 대학의 인상률과 비슷함. 타 대학의 경우, 일반 학부 학생과의 등록금 차이를 일정 정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본교의 경우 등록금 총액을 고려하면 수입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10% 인상하게 되었을 때 타 대학과의 외국인 등록금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타 대학보다 높다면 좋은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타 대학보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이 낮은 편임. 또한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음. 또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볼 때, 외국인 등록금이 인상되지 않았을 때, 반대로 학부 학생들의 등록금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학부생들과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기획예산팀의 등록금 책정안을 반영하였을 때 2019회계연도의 재정수지는 어떠한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계약직원 인건비 상승분 1.1억원, 교직원 인건비 12억원 증가가 예상됨. 또한 강사법이 어떻게 적용되느냐도 관건임. 강사법의 실질적인 적용 방향에 따라 편차가 4억에서 20억 까지 변화 폭이 커 내년 재정수지 예측은 어려움. 또한 현리인성교육원에 4~5억원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 가고, 용역 인건비도 4~5억원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비용 상승이 매우 큼. 다만 1월 말에 확정되는 대학혁신사업 교부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어느정도 적자를 감소시킬 수는 있음.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강사법의 영향으로 20억원 가까이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한지.

김장훈 (기획예산팀 예산파트장)

강사들에게 방학 기간의 급여를 현재 월정 금액으로 계속 지급하느냐, 현재 4개월동안 지급하는 총급여액을 방학까지 적용하여 6개월로 안분하고 4대보험과 퇴직금만 추가로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증가되는 비용의 편차가 큼. 또한 예상한 추가 비용은 현재 시간 강사들이 맡고 있는 총 학점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시간강사를 고용하는 학점 기준을 학교에서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도 비용의 편차가 커지게 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동문회에서 학교 외부,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주기 바람. 학교에서도 기부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동문회에서 많은 협조를 바람.

김창배(외부전문가위원)

현재 상황이 안타까움. 법인 측에서도 동문회와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적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데 동문회에 주어지는 역할은 없고 기부금만 요구하게 되면 동문들이 따르지 않을 것임. 이사회에서 동문회 위원을 당연직으로 선출하는 등의 동문회와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학교를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동문회에서도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함. 현재 중앙대와 같이 기업이 재단으로 있는 학교들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학교까지 같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이에 비해 서강대의 경우에는 작은 규모를 활용하여 조금만 더 발전하면 예전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합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인에서도 개방적인 자세를 보이려 노력할 것임.

이관엽(등심위 TFT 위원)

외국인 학생들의 설득을 위해 국제학생교육센터에 대한 기획처와 국제팀의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드리며, 등록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학생 감소의 가능성은 없는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현 추세는 외국인 학생들도 서울 소재 대학을 선호하며, 이후에는 대학이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서 각 대학의 외국인 학생 수가 달라질 것임. 우리 대학의 경우 한국어 교육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 유치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외국인 학생 증가로 인한 적응 문제, 수업 진행의 어려움 등을 이사회에서도 인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제학생교육센터를 기획하게 된 것임.

이종진(위원장)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은 등록금 수입을 늘리기 위한 의도가 아닌 철저히 외국인 학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아주기 바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일본과 미국의 경우 자국 학생과 달리 외국인 학생에게 부과하는 등록금이 매우 크지만 한국은 등록금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음.

원재환(학생문화처장)

국제학생교육센터 운영비 증가와는 별개로 외국인 학생 성적 장학금을 다시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 외국인 성적 장학금은 일반 학부생 등록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 등록금 인상분은 외국인 학생 성적 장학금에도 사용될 것임.

원재환(학생문화처장)

현재 등록금 동결 안은 학교로서도 어려움이 많이 예상됨.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교를 이와 같이 통제하는 사례가 별로 없음.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동문회의 기부금이 수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앞으로 우리나라의 명문 대학의 입지는 동문회에 의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동문회에서 많은 협조를 바람.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학생들도 새벽 2시까지 회의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총학생회의 의견은 동결

기조로 가더라도 학생들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길 바라고 학생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주기 바람.

이종진(위원장)

학교가 운영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교육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최대한 유지하고 있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2019년도 예산은 대학평의회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해 사전 열람도 가능함.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학교 예산에 있어서도 우리 학교는 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학생들도 이 점을 알아주길 바라며 어려움을 학생과 학교와 같이 합심하여 이겨나가기를 바람.

이종진(위원장)

외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액과 국제학생 교육센터 운영 예산 등 관련 자료들을 학부 학생 위원에게 추가로 제공하여 줄 수 있다면 외국인 학생들을 설득하는 데 더 좋을 것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등록금 책정안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미래교육위원회” 논의에서 나온 의견이며, 교육부에서 등록금 인상 판정이 나지 않도록 고려하여 등록금을 책정함. 지식융합미디어학부의 경우 제1전공 학생 뿐 아니라 제2전공 학생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험실습 기자재를 확충해 나가려 노력할 것임.

원재환(학생문화처장)

등록금 책정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교수들과의 의견 수렴은 되었는지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관련 TFT에서 충분히 학생 및 교수들과 논의했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였음.

원재환(학생문화처장)

아트&테크놀로지 전공 학생의 경우 기존 등록금 금액이 유지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아트&테크놀로지의 경우 전공 선택 시에 어느 정도 정원에 범위를 두려고 함. 아트&테크놀로지 전공 학생이 현 정원보다 조금 더 뽑히더라도 등록금 인상 판정에는 큰 영향은 없음. 학부에서 정원을 책정할 때에 현재 보유 중인 교육 기자재의 원활한 사용을 고려

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매년 조금씩 기자재 확충을 해나가려 함.

이종진(위원장)

지식융합미디어학부는 융합과 관련하여 집행부가 이루어낸 업적이며, 학교에서도 학문 간 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임.

김달원(학교법인 사무팀장)

현 교육의 트렌드가 융합인데, 지식융합미디어학부가 그 첫 시도이며 학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원재환(학생문화처장)

실질적으로 지식융합미디어학부의 1학년 등록금이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등록금이 인하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관엽(등심위 TFT 위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통합으로 인해서 등록금 총액이 줄어드는데, 이 때문에 기존에 높은 등록금을 내던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학생들 사이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지식을 얻기 어려움.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받는 부분이 없도록 학교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람. 지식융합미디어학부와 관련하여 학부의 장단기적인 미래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기 바람.

박시남(기획예산팀장)

국고사업지원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학교에서도 지식융합미디어학부에 정책적으로 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학부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부분임. 학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학교 측에서는 노력할 것이라는 점임.

이관엽(등심위 TFT 위원)

학부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끝난 후에도 열람할 수 있기를 바람. 또한 등록금 심의위원회 기간 뿐 아니라 다른 시기에도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있기를 바람.

이종진(위원장)

연말에 논의가 집중되기보다 평소 때에도 학교와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임.

박시남(기획예산팀장)

인공지능경제전공의 경우 경제대학원 총 등록금액은 똑같이 유지하면서 기존의 5학기제 다르게 4학기제로 하여 안분하였기 때문에 학기당 등록금액은 상승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교육 수혜에 따른 총 등록금액이 같기 때문에 이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타 대학원이 학기 수를 줄일 때에도 등록금 책정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음.

3. 결정사항

(1) 등록금 책정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학부 입학금 16% 인하 및 수업료 동결
- 학부 정원의 외국인 유학생 수업료 10% 인상(입학금은 동일하게 16% 인하)
- 일반, 특수, 전문대학원 수업료 동결

(2)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1학년은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을 책정
- 2~4학년은 기존 학과 전공 등록금을 부과

(3) 신설된 경제대학원 인공지능경제전공 등록금을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졸업까지 부과되는 총 등록금은 기존 경제대학원과 동일하게 책정
- 4학기제로 결정 시 학기별 등록금은 현 부동산경제전공(4학기제) 등록금과 동일하게 책정

2019. 1. 15

위의 사실을 확인함

위원장 : 이종진 기획처장

(교직원 위원)

김달원
법인 사무팀장

원재환
학생문화처장

박시남
기획예산팀장

(학생위원)

이관엽
등록금심의위원/학부PT 위원

최효영
대학원 총학생회장

(외부전문가)

김창배
파투아 부회장